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7,338.2	20.9	129,500	0.4	-17.8	-5.1	-6.5	30.4	90.2	0.6	0.6	1.9	0.7
현대로보티кс	6,319.2	19.7	388,000	0.3	-4.4	-8.7	N/A	3.6	52	0.8	0.7	21.8	14.1
현대일렉트릭	1,148.2	6.8	112,500	0.0	1.1	4.3	N/A	13.7	10.7	1.0	1.0	7.6	9.3
현대건설/기계	1,718.5	10.5	174,000	-1.1	1.3	11.2	N/A	14.3	11.1	1.4	1.2	9.6	11.7
삼성중공업	2,940.6	18.5	7,540	0.0	-40.2	-24.4	-18.5	31.5	47.6	0.5	0.5	1.5	1.0
대우조선해양	1,796.0	33	17,100	-0.6	-13.4	N/A	-61.8	1.0	9.6	0.4	0.5	63.6	4.9
현대미포조선	1,778.0	12.7	88,900	1.5	-15.3	-7.0	32.3	3.7	19.2	0.7	0.7	20.9	3.6
한진중공업	332.5	4.2	3,135	0.8	-19.4	-20.8	-6.8	-2.2	63.1	0.5	0.5	-18.7	0.7
현대엘리베이터	1,248.9	33.0	50,700	-0.6	-8.8	-0.4	-11.7	9.4	8.9	14	12	15.9	14.6
두산밥캣	3,483.7	28.0	34,750	1.8	-3.1	-6.6	-3.1	16.0	12.8	1.0	0.9	6.3	7.4
현대로템	1,632.0	28.1	19,200	-0.5	-3.3	8.5	5.8	44.3	24.8	1.1	1.1	2.6	4.5
하이록코리아	317.2	46.8	23,300	-1.9	-15.0	123	10.4	11.5	10.5	1.0	0.9	8.7	8.8
성광밴드	288.9	13.9	10,100	0.0	-1.5	7.6	14.0	-35.2	892.8	0.6	0.6	-1.8	0.1
태광	279.6	16.6	10,550	-3.2	1.9	14.3	27.3	-22.5	63.0	0.7	0.7	-2.9	1.0
두산중공업	1,687.4	7.5	15,850	0.3	-11.0	-7.3	-41.7	-48.7	10.7	0.6	0.5	-12	4.6
두산인프라코어	1,819.9	11.3	8,750	0.7	-10.7	54	-0.8	9.1	8.0	0.9	0.8	9.8	10.5
두산엔진	328.0	3.9	4,720	0.0	2.4	14.4	43.7	31.8	46.0	0.6	0.6	1.9	1.3
한국항공우주산업	4,615.4	18.0	47,350	2.0	-10.5	4.1	-29.3	-70.0	27.1	3.5	3.2	-4.7	12.1
한화테크윈	1,872.6	18.3	35,600	3.9	-7.7	-6.4	-18.1	29.1	18.2	0.8	0.8	2.7	4.3
LIG넥스원	1,260.6	12.3	57,300	0.9	-4.2	-24.8	-28.8	25.0	14.5	1.9	1.7	7.9	12.6
태웅	350.1	1.5	17,500	-1.7	-7.4	-6.7	-22.0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33.4	3.1	4,945	3.3	-4.7	-11	-14.0	N/A	N/A	N/A	N/A	N/A	N/A
한국카본	236.9	15.5	5,390	-1.3	-10.5	-7.5	-10.9	N/A	N/A	N/A	N/A	N/A	N/A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重, 2개 선사로부터 VLCC 3척 수주...막바지 영업 총력

1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30만DWT급 VLCC를 장금상선에서 2척, 현대글로비스에서 1척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계약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척당 약 8,300만달러로 예상됨. 최근 VLCC 선가인 8,100만달러보다 높은 금액으로, 해당 선박은 IMO Tier-III에 맞춰 선거가 오른 것으로 알려짐. 해당 선박은 2019년 인도돼 GS칼텍스의 원유 운반에 투입될 예정임. (뉴스1)

Enesel adds two more crude tankers to fleet

그리스 선사 Enesel은 현대중공업에 보유한 32만DWT급 VLCC 옵션 마지막 1척을 추가로 행사했다고 알려짐. 올해 2월 현대중공업에 2+2척을 발주했고, 지난 5월 옵션 1척을 행사함. 이번 마지막 옵션 1척을 행사해 총 4척의 VLCC를 인도받을 예정으로 알려짐. 인도는 2018년 7월부터 시작 예정임. (TradeWinds)

EMA: 'Floaters back in fashion'

Energy Maritime Associates(EMA)에 따르면, 작년 FPS(부유식 생산시스템)에 약 150억달러가 계약됐다고 알려짐. 또 EMA는 FPSO, FLNG, FSRU 등을 모두 포함하는 FPU 수요를 124척으로 전망함. Base case인 80~173척 발주 시 5년간 금액은 총 940억달러로 전망함. 특히 브라질과 아프리카에서 삼해 FPSO와 FLNG를 포함해 총 500억달러 수준의 FPS 발주를 전망함. (Upstream)

두산엔진, MSC 수주전서 고배...매각작업에 켜진 '경고등'

두산엔진이 컨테이너선사 MSC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들어갈 선박 엔진을 수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알려짐.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5척은 현대중공업에, 삼성중공업은 현대중공업과 STX엔진에 나눠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짐. 두산엔진은 매각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수주경쟁에 밀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함. (이데일리)

Clarksons sees Golar LNG price catalysts

Clarksons에 따르면, Golar LNG는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새로운 LNG생산 장치가 가동됨에 따라 수혜를 볼 것으로 알려짐. Spot 운임은 오스트리아와 북해의 정전에 따라 23% 상승했다고 알려짐. 정전으로 Spot 운임이 용선료 수준인 약 10만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음. Poten & Partners에 따르면 용선료는 일 8.7만달러로 한달 간 34%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함. (TradeWinds)

인도 Gail, 미국산 LNG 연간 500만t 수입

인도 국영전력회사 Gail India Ltd가 18년에 Spot 시장에서 LNG를 구매하는 대신에 미국산 LNG 약 500만톤을 수입할 계획으로 알려짐. 기존 Spot 물량을 미국산 LNG로 대체할 예정이며, 미국 Cheniere Energy와 20년동안 매년 350만톤, Dominion Energy에서 230만톤을 구매하기로 계약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